

다.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하는 단체별 규모에서 본다면 World-OKTA회원이 2008년 기준 231명으로 가장 많이 참가하고 있다.<sup>13)</sup>

개최 장소의 경우 지역별로 순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상대회는 제주에서 2회, 부산에서 2회, 경기1회, 서울2회 개최되었는데, 호남지역에서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아 이 지역 출신 한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동양사회의 전통인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거래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줄여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한상들은 고향의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애착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고향의 문화와 정을 느끼고 고향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최 지역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한상들이 밀집되어 있는 미국 LA나 중국 연변, 산둥성 등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분간은 국내 지역을 순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상대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서 해외에서 개최할 경우 제반 경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한상대회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

세계한상들이 국내를 방문하여 한상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별 한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이러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2010년 6월 중국 심양에서 중국한국상회가 주관하는 ‘글로벌중국한상대회’가 개최된다. 중국한국상회가 주관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조선족기업 3000여개가 참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 글로벌 한상들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세계한상대회의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모국인 한국에서 개최되던 방식이 중국이나 미국, 일본과 같이 한상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글로벌 한민족 비즈니스의 장인 한상대회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 주요 국가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그 만큼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둘째, 대회의 내용은 한상들의 단순한 만남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행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상들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진행될 수는 사업이 필요하다. 한상대회 기간에 FTA 등 세계경제의 변화, BRICs 등 신규시장, 주요 업종별 전망, 한국의 새로운 비교우위 품목의 개발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수준의 한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국가별, 영역별 다양한 한상네트워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한상, 도시별, 지역별, 국가별 조직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게 된다. 글로벌 수준의 한상네트워크와 지역별, 영역별로 구축된 네트워크가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networking of networks)가 가능할 때 한상네트워크 구축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시 주최 측의 경영 전략 변화가 요구된다. 세계한상대회 상품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전시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의 수준에 따라 성과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한상대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시설 및 규모, 체류 비용 및 관광 서비스, 참관 비용 및 안전, 편의시설, 프로그램 운용 수준 등이 중요한 요인들이다. 이는 전시 주최자가 전시회 기간

13) 다음으로 중국청도조선족기업가협회 110명,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105명, 재일한국상공회의소 59명 순으로 많이 참가한다.

동안 효율적으로 이벤트를 운영함으로써 참가 기업 뿐만 아니라 바이어들에게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최 측에서 한상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중소기업과 연계시키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한상넷을 통해 중소기업과 한상들이 자율적으로 소통하며 거래하고 있는데 주최 측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및 한상 바이어에 대한 신인도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수출 계약 후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시회의 평판(인지도)은 전시 참가자들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한상대회의 경우 8년 동안 개최 되면서 비교적 많은 홍보가 되었지만 아직은 높은 인지도를 갖지 못한 실정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상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도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이 전시회에 대한 정보의 문제이다. 전시회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물류적 정보(언제, 어디서 개최되는가?), 제품정보(무엇이 전시되고, 어떤 기업이 참가하는가?), 프로그램 정보(세미나, 설명회 등) 등이다. 한상대회의 물류적 정보는 대부분 1년 전에 결정되어 많은 홍보가 된다. 제품정보 중 참여기업과 바이어에 대한 정보는 한상 넷에 한정되어 있고, 정보 내용도 기본적인 디렉토리 정보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다.

## 2).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 마케팅

한국의 중소기업은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 고용의 87.5%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약화되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부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83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고용 창출자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수출은 2007년 기준으로 32.0%를 차지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기여도에서도 독자적인 경제 주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중소기업청, 2008:45-47).

그렇지만 최근 세계금융위기는 한국의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금융위기로 몰아가고, 원유 및 원자재가격 인상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국가 간 유무형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기업간 경쟁에서 더 이상 자본이나 노동 같은 생산요소의 비교우위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국가간 FTA확산으로 국내와 국외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져 기업도 더 이상 국내에만 안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간 경쟁의 내용과 범위가 무차별적 경쟁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낙오의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가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글로벌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해외에서 찾을 경우 180여개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상네트워크가 성장 동력

으로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시장에 적합한 제품 모색 및 변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요 실패요인 중 하나가 해외 마케팅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 측면에 대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해외마케팅을 위한 정교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서 시장정보를 비롯하여 판매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능력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상네트 워크가 그러한 역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상대회 기간에 전시회와 1:1 비즈니스 미팅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상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별 영역별 한상네트워크들과 국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교류가 요구된다.

첫째,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상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외현지 마케팅지원 사업인 수출인큐베이터사업과 해외 지사화 사업을 확대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수출지역을 중심으로 해외물류거점이나 판매 후 서비스 거점을 확충하여야 한다.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단순한 설립지역 확대보다는 전략적인 육성분야나 전략적인 진출지역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신설보다는 기존 해외과건기관의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수출인큐베이터 확대방침에 따라 우선 KOTRA가 자체 무역관 내에 OKTA 등 현지 한상네트워크들과 공동으로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KOTRA의 협력이 효율적이다.

세계한상대회 기간 동안 옥타를 비롯하여 유럽한인상공인연합회, 캐나다한인실업인협회, INKE, 미주한인식품상협회 등이 국내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MOU체결의 주요한 취지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위해서인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목표를 설정하고, 사전홍보 및 광고, 부스 직원 교육 등과 같은 사전활동이 중요하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많은 기업들이 방문객을 전시장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사의 전시부스 내로 유치하는 책임이 전시 주최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사의 부스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적을 경우 전시 주최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그러나 전시 주최자는 전시회를 방문하는 표적 고객에게 프로모션 하는 데만 책임이 있을 뿐, 전시회를 방문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참가 기업의 책임이다. 때문에 참가기업의 사전 광고 및 홍보 활동이 점차로 중요해 지고 있다. 한상대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hansang.net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사전 마케팅이 필요하다. 한상기업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샘플까지 보내어 한상대회 참가 시 반드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시부스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는 고객과의 접촉 효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스직원의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시회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부스 직원의 고객관리 역량에 따라 참가업체의 전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전시회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많은 기업의 참가라 인해 매우 경쟁적이기 때문에, 참가 기업은 가능한 많은 바이어를 만나서 세일즈 리드를 창출해야 한다.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단순 방문객과 바이어를 빨리 구분해 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 응대 요령과 같은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 한상대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류의 경우 안전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HACCP, ISO 등 인증과 통관 및 식품 안전성을 검사하는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바이어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넷째, 전시회에 설치된 부스규모, 부스위치, 현장프로모션 등도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부스 규모가 크고, 인테리어를 잘해놓을 수록 방문객이 많이 오고, 보다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상품 브랜드를 홍보하여 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회는 직접 판매(direct selling)와 광고(advertising)효과 성격 모두를 혼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한상과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직접 판매에 해당하고, 부스를 멋지게 디자인하여 시선을 끄는 것이나,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광고의 성격에 해당한다. 현장 프로모션의 유형으로는 상품 샘플 제공, 제품 시연, 홍보자료 제공, 이벤트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모션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부스 유인 효과가 높아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한상대회의 전시부스는 매우 규격화 되어 있어 상품에 따른 다양성을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국제 전시회에 참여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상 거주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출 증대. 국가별로 규모 있는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국내대회의 장점이 항공료, 체제비, 운송비 등의 절감이라는 측면도 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보다 많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고, 국제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은 코트라 등에서 제공하는 전시회 정보를 활용하여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양질의 바이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한상 바이어들을 접촉하여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저녁 시간에는 만찬을 하면서 상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과정에 World-OKTA,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국가별 한상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다. 시장, 백화점, 마트 등을 방문하여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이다.

여섯째, 글로벌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학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한상과 네트워킹을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대학차원에서 글로벌 코리안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현재 글로벌무역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4회째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 전국 24개 대학교, 300여개 지방 중소기업업체가 참가하며 전국적으로 900여명의 대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2010년 7월 심양에서 개최된 제1회 글로벌중국한상대회에 20여개 대학이 전시부스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상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글로벌 마케팅 체험을 통해 글로벌 코리안으로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계한상대회 상품 전시회에 차세대 한상들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대학생들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고 마케팅에 직접 참가하여 글로벌 코리안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에게 무역실무와 외국어, 현지 지역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수출하는데 세계한상대회는 충분한 역할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한 대학생들은 해외취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V.결 론

21세기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인구유동과 초국적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지구촌 시대이다. 지구촌 시대 국제사회는 제반 분야에서 네트워킹 사회로 이행되고, 네트워킹이 잘되어 있는 민족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세기의 전환기에 세계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한민족을 하나의 정교한 연계망으로 네트워킹 한다는 것은 한민족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한민족을 네트워킹하기 위한 작업은 한국의 중앙정부에서부터 재외동포 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글로벌 수준의 네트워킹은 친목 도모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한민족을 네트워킹 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은 관련 부처의 예산에 반영되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모국 경제와 연계하려는 한상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적 성공한 재외동포 경제인 즉 한상들이 자비를 들여 ‘한상대회’에 참여하여 모국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2006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 고용의 87.5%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83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새로운 고용 창출자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수출은 2007년 기준으로 32.0%를 차지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기여도에서도 독자적인 경제 주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들은 해외마케팅을 위한 정교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서 시장정보를 비롯하여 판매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시장에 적합한 제품물색 및 변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요 실패요인 중 하나가 해외 마케팅 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 측면에 대한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계를 무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상들이 그러한 역할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모국에서 매년 개최되는 한상대회 기간에 전시회와 1:1 비즈니스 미팅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상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별 영역별 한상네트워크들과 국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교류가 요구된다.

한국은 수출 의존형 경제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시회가 무역 거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업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반면 매우 불만족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이 전시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시회의 구성요소인 전시 주최자(organizer)와 참가기업(exhibitor) 모두의

측면에서 참가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상대회를 주관하는 재외동포재단은 1회부터 8회까지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하는 추적 조사를 해야 한다. 당해 연도 상담 실적이 상담에 그치는지 아니면 바로 수출로 연결되는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단이 발표하는 매년 5억달러 내외의 한상대회 성과 규모가 상담에 그치고 실제 거래규모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세계한상대회가 재외동포들의 ‘친목도모’와 ‘모국 방문’ 행사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한상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시회의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만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있다.

글로벌시대 한민족 발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한상네트워크는 모국 투자와 무역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민족 자산이다. 현재 세계한상들은 세계한민족네트워크를 추동하고 있는 가장 조직화되고 응집력이 높은 존재이지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세계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와 재외동포와 남북한 한민족을 포괄하는 세계한민족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 전략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일제시대 재일한인 민족운동과 재일유학생운동

김 인 덕(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 서론
2. 1910년대 재일한인 민족운동과 재일유학생 운동
3. 1920년대 재일한인 민족운동과 재일유학생 운동
4. 1930·40년대 재일한인 민족운동과 재일유학생 운동
5. 결론

## I. 서론

재일한인은 일본에 경제·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도입하여 일본에 정주한 사람들을 통칭한다.<sup>14)</sup> 이들 재일한인의 민족운동은 시기·지역별 특성을 띠고 있고, 노동운동과 청년·학생운동을 통해 일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에서 반제·반봉건적 성격을 갖고 전개되었다. 이러한 재일한인의 민족운동사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한인에 의한 저항사의 일부분이다.

재일한인 민족운동은 식민지 조선을 일본제국주의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민주 독립국가를 수립하는데 투쟁의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부단히 국내 및 일본 내의 각종 정치적 문제에 대해 민족·계급적 투쟁을 전개했다.

일제시대 재일한인사와 재일한인 민족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선행 연구사<sup>15)</sup>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는 일본에서 간행되고 국내에서 복간<sup>16)</sup>되다가,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자료집이 나오기도 있다.<sup>17)</sup> 이러한 재일한인 민족운동사에 대한 연구는 통사

14) 1910년부터 1945년 시기에 일본에 살았던 ‘한민족’에 대해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필자는 ‘재일조선인’, ‘재일코리안’이라는 보다는 ‘재일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민족의 일부로 일본에 살고 있었던 한민족이라는 의미에서 ‘재일한인’이라고 칭한다. 단, 문맥상 필요에 따라 ‘재일 조선인’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15) 연구사는 박경식과 外村大의 저서 제1장과 서장의 연구사와 필자의 글을 참조한다.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 三一書房, 1979, 김인덕, 「일본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국사론』(26), 1996, 外村大,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硏究』, 綠蔭書房, 2004.

16) 明石博隆·松浦總三 編, 『昭和特高彈歴史』(6)(7)(8), 太平出版社, 1975-76,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3)(4), 原書房, 1966-67,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1-5), 三一書房, 1975-76, 朴慶植 編 『朝鮮問題資料叢書』(1-15), アジア問題研究所, 1994, 世界革命硏究會, 『資料在日朝鮮人共產主義運動』(『世界革命運動情報』(特別號2, 4號), 小澤有作 編, 『在日朝鮮人』(『近代民衆の記録』(10)), 新人物往來社, 1978.

17) 김인덕 편, 『식민지시대 민족운동사자료집-일본지역편-』(1-7), 국학자료원, 1997, 外村

적인 대표적인 성과를 세 가지 관점에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별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박경식의 경우 일제시대의 민족운동을 민족독립운동의 봉화(1910년대), 민족독립운동의 고양(1920년대), 침략전쟁에 대항하여(1930년대), 태평양전쟁 하의 저항(1940년대 전반)으로 시간적 구분을 시도했다.<sup>18)</sup> 와이너는 재일한인사의 시기구분에 있어 관동대진재를 분수령으로 하는 경찰의 시점을 그대로 채용하고, 동시에 1925년부터 1938년까지를 한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1930년대 초를 시기구분의 시점으로 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로 東京와 大阪 등지 말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정주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sup>19)</sup>

둘째, 계열별로 서술하고 있다. 坪江汕二는 자신의 저서의 한 장인 「일본에 있어 종전전의 민족·사회주의운동」에서 민족주의운동, 민족적 무정부주의운동, 공산주의운동,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으로 나누어 재일한인의 민족운동을 계열별로 정리하고 있다.<sup>20)</sup> 고준석은 재일한인유학생의 항일운동, 재일조선 좌익학생의 반전·반파시즘운동,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의 투쟁, 재일한인 노동운동의 전개, 민족주의자와의 공동투쟁, 조선공산당 재건과 프롤레타리아문화운동, 일본공산당 및 인민전선테제 하의 운동으로 운동의 성격에 주목해 구분 짓고 있다.<sup>21)</sup> 그런가 하면 전준은 ‘지식층의 활동과정’, ‘공산주의운동’, ‘제2차 세계대전 시의 상황’으로 전전 시기의 재일한인의 민족운동을 정리했다.<sup>22)</sup>

셋째, 분야사 중심의 서술로 재일한인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김찬정(金贊汀)은 민족의 광복-식민지배시대-이라는 제목 아래 일제시대 재일한인의 사회와 삶을 서술하고 있다.<sup>23)</sup> 아울러 니시나리타 유다카(西成田豊)는 재일한인 단체의 구성과 노동운동, ‘제국’국가의 정책, 전시 하의 재일한인과 ‘제국’국가, 조선인강제 연행의 정책과 실태로 일제시대 재일한인의 상을 그리고 있다.<sup>24)</sup>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의 성과물로 『일본 한인의 역사』(상)은 공동 집필의 형식으로 재일한인의 역사를 현재적 문제에 주목하면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sup>25)</sup>

이 가운데 재일 유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운동사에서 언급하거나 개별적인 단체나 사건, 잡지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sup>26)</sup>

大, 김인덕 공편, 『解放前 在日韓人關係記事集成I-朝鮮日報 編-』, 경인문화사, 2008. 5.

18) 朴慶植, 『在日朝鮮人運動史-8·15解放前-』,三一書房, 1979.

19) Michael Weiner, Race and Migration in Imperial Japan, London, Routledge, 1994.

20) 坪江汕二, 『改訂 增補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 高麗書林, 1986.

21) 高峻石, 『在日朝鮮人革命運動史』, 拓植書房, 1985.

22) 전준, 『조총련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23) 金贊汀, 『在日コリアン百年史』, 三吳館, 1997.

24) 西成田豊,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國」國家』, 東京大學出版會, 1997.

25) 『일본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9.

26) 김성식, 『일제하 한국학생독립운동사』, 정음사, 1983, 정세현, 『학생운동』,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在日韓國留學生連合會 編, 『日本留學100年史』, 在日韓國留學生連合會, 1988, 김호일, 『일제하 학생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김기주, 『한말 재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 느티나무, 1993,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66), 1995, 김인덕, 「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13집), 1999, 차배근, 『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 출판활동 연구(I)』(1884-1898),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엄호진, 「<학지광>논설로 본 1910년대 재일유학생의 현실인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2, 김호일, 『(한국근



본고는 재일한인의 민족운동을 시기별 특성에 주목하여 주요 사건과 단체를 중심으로 재일한인의 민족운동을 평가하고, 이와 연동해 주요 대표적인 재일유학생 단체의 조직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시대 재일유학생의 민족운동사 속의 위상을 재고해 보고자 한다.<sup>27)</sup>

## II. 1910년대 재일한인 민족운동과 재일유학생 운동

### 1. 도일

재일한인은 일본에 경제·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도일<sup>28)</sup>했다. 이들 재일한인은 일본자본주의의 통치 대상으로 일본 사회 속에 편입되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도일정책은 집단적인 노동자 관리를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취해졌다. 이 1910년대는 일본지역의 '조선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sup>29)</sup> 1921년까지는 '조선인'의 도일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조선인'의 도일은 철저히 일본제국주의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어, 1922년 12월 여행증명제도가 철폐되고, 1923년에는 도항증명제도가 실시되었다. 1923년의 간토대진재 때의 파괴된 시가지의 복구를 위해 노동력이 요구되자 일본 정부는 도항증명제를 폐지했다. 일본 경제의 상황이 악화되자 내무성은 1925년 8월 도일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연이어 재일한인 노동자의 실업문제가 야기되어 1925년 10월부터 도항저지(제한)가 실시되었다. 이후 1928년 7월 조선총독부는 도항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지참금을 60円 이상 소지하고 노동브로커의 모집에 의한 것이 아닌 '조선인'의 도일만 허용했다. 1927년 3월 일본경제는 금융공황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1929년 세계공황에 의해 보다 심화되자 일본 기업의 '조선인' 노동자 단체 모집은 제한되었다. 이후 도일은 재도항증명서제로 보다 통제되었다.

1930년대 일본제국주의의 도일정책은 '조선인'의 도일과 그들의 일본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의 도일정책은 일시귀선증명서제도와 도항소개장 발급제도로 대변된다. 일시귀선증명서제도를 한층 강화한 1930년대 도일정책의 결정판은 1936년 5월에 경무국이 발송한 규제통첩이다.<sup>30)</sup> 이 규정에 의하면 피부양자가 도일을 할 경우에 일본에서 조회를 거친 후 관찰

---

대)학생운동사』, 선인, 2005, 정미량, 「1920년대 재일조선유학생의 자유주의적 문화운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 박종린, 「1910년대 재일유학생의 사회주의사상 수용과 '김철수 그룹」, 『사림』 (30), 2008, 장규식, 『1920년대 학생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7) 본고에서는 청년운동세력과 단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별도의 주가 없으면 필자의 다음의 글을 참조. 김인덕·김도형,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지역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28) 일제시대 재일한인의 '도일'은 조선인의 일본으로 간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도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조선인의 일본행은 항구를 건너 단순한 인구의 국내 이동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노동력의 이주였다.

29) 이후 자세한 1910년대 재일한인 도일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정혜경, 「일제하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의 연구-대판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1999. 2.

30) 內務省 警保局, 「特高警察通牒」, 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3), 20-23쪽.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도항소개장을 소지해야 했다. 이 도일 규제를 통해 일본은 ‘조선인’의 도일을 철저히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강제연행기에 들어서면서 전면적으로 도일 정책이 바뀔 때까지 근간이 되었다.

<표1> 재일한인의 거주인구 변화<sup>31)</sup>

연도	(1)	(2)	(3)
1911	2,527		5,728
1912	3,171		7,796
1913	3,635	3,952	10,394
1914	3,542	4,176	12,961
1915	3,917	5,064	15,106
1916	5,624	7,225	17,972
1917	14,502	17,463	22,218
1918	22,411	27,340	34,082
1919	26,605	35,995	37,732
1920	30,189	40,755	40,755
1921	38,651	48,774	62,404
1922	59,722	82,693	90,741
1923	80,415	112,051	136,557
<b>1924</b>	118,152	168,002	172,130
1925	129,870	187,102	214,657
1926	143,798	207,853	247,358
1927	165,286	246,515	308,685
1928	238,102	341,737	358,121
<b>1929</b>	<b>275,206</b>	<b>387,901</b>	<b>398,920</b>
1930	298,091	419,009	419,009
1931	311,247	437,519	427,275
1932	390,543	504,176	433,692
1933	456,217	573,896	500,637
1934	537,695	689,651	559,080
1935	625,678	720,818	615,869
1936	690,501	780,528	657,497
1937	735,689	822,214	693,138
1938	799,878	881,347	796,927

이상과 같은 정책에 따른 재일한인의 도일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에서와 같이 관동대진재 이후에는 일본경제의 필요에 따라 정주하는 인구가 늘어났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도 도일 후 거주하는 ‘조선인’은 늘어났는데, ‘조선인’의 도일을 촉진시킨 요소는 상존했다. 그것은 내부적인 요소와 외부적인 요소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내부적인 요소로는 가뭄과 수해를 들 수 있고, 외부적인 요소로는 중국인 노동력의 수입 때문이었다. 재일한인은 1938년 전시동원체제 이전에도 약 80만 명이 살았다.

이러한 도일한 ‘조선인’ 노동자 즉, 재일한인은 직공과 광부, 토건인부가 되었다. 특히 실

31) (1) : 『日本帝國統計年鑑』, (2) :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 新紀元, 1957, (3) : 田村紀之, 「內務省警報局調査による朝鮮人人口(1)」, 『經濟と經濟學』(46), 1981. 필자는 재일한인의 정주인구는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전시동원체제 이전에 일본에 가서 산 사람들에게 국한한다. 강제연행기 재일한인은 정주인구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업구제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재일한인 노동자가 지방의 토목공사장으로 이동하여 노동을 했다. 이와 함께 재일한인 노동자들이 건강하다는 미명 아래 광산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채탄작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재일한인은 경기 변동에 직면하여 항상 먼저 희생이 되어 실업 상태에 빠졌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재일한인의 실업문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재일한인의 지위는 최하층 노동자로 상징되었다.

한편 이주자가 급속히 늘어난 1920년 전후 재일한인 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재일한인 마을은 재일한인에 의한 自衛의 장소로 함바, 저지대, 습지대, 하천부지 등에 형성된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내에는 ‘조선음식점’과 조선음식의 재료가게가 생겼다.

강제연행기는 1939년 이후 1945년 8월 일본 패망까지이다.<sup>32)</sup> 이 때 일제는 노무동원, 병력동원, 준병력동원, 여성동원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강제로 진행했다. 이러한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는 연행방식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1939년 9월부터 1942년 2월까지의 이른바 ‘모집’이라는 방식을 쓴 시기이다. 제2기는 1942년 3월부터 1944년 8월까지로, ‘조선인 내지 이입 알선요강’에 의거하여 조선총독부의 외곽단체인 조선노무협회가 노동자의 알선, 모집사업의 주체가 되었던 이른바 ‘관알선’ 시기이다. 제3기는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패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국민징용령’이 적용되어 공공연히 강제연행이 자행되었던 때이다.<sup>33)</sup> 이때 강제연행된 조선인은 국내동원을 포함하여 800만 명 수준이었다.<sup>34)</sup>

이상과 같은 독일과 정주의 과정을 거쳐 1945년 일본이 패망했을 때 살고 있던 재일한인은 210만 명 선이었다.

## 2. 일본유학과 유학생

일본에 유학생<sup>35)</sup>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1881년부터였다. 이후 1910년 강제병합 때까지의 흐름을 보면 개화파의 주도로 유길준, 윤치호 등이 유학한 것과 3차 수신사가 독일할 때 신복모, 장대용, 이은돌 등이 유학한 것, 이후 노백린, 이갑, 유동열, 김형섭, 어담 등이 갑오개혁의 추진 과정 때 유학했다.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최남선, 최린 등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1905년 이후 독일한 유학생은 관비유학생 보다 사비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했다.<sup>36)</sup>

19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 유학이 전개되었는데, 국내에서 제대로 된 학교가 부재하던 가운데 근대적인 국가로 성장하여 조선을 침략한 일본은 일정하게 새로운 지식의 보고였다. 1915년까지 당시 조선에는 전문학교 제도는 있었으나 학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1910년대 말까지 전문학교는 관립으로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

32) 김인덕, 『강제연행사 연구』, 2003, 경인문화사, 4쪽.

33) 한일문제연구원,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7백만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 아세아문화사, 1995, 28-29쪽.

19) 김민영,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인원 추정」, 『2003년도 일제하 피강제동원자 등 실태조사연구 보고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년, 참조.

35) 재일유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가 없으면 필자의 다음의 글을 참조.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66), 1995.

36) 김기주, 『한말 재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 느티나무, 1993, 209쪽.

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가 그리고 사립으로는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1910년 이후의 재일유학은 사비유학으로 구성원도 1910년대와 달리 문벌과 권세가 있는 집안의 사람만이 아니라 다양해 졌고, 고학생이 늘어났다. 특히 전문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는 학비 때문에 야간에 공부하고 주간에 노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고학생은 주로 東京과 大阪, 神戸, 京都 등지에 살면서 신문배달, 인력거꾼, 일용노동자, 점원 등으로 생계를 주로 유지했다.<sup>37)</sup> 이들 유학생의 다수는 東京에 거주했다.

<표2> 1920년대 말 30년대 초 도일 유학생의 지역별 추이<sup>38)</sup>

연도	東京	京都	大阪	기타	합계
1929	3,086	344	265	738	4,333
1930	3,443	494	314	1,034	5,285
1931	3,075	416	460	1,111	5,062
1932	3,991	295	516	1,175	4,977

이들이 주로 다니던 학교는 正則英語學校, 明治大, 早稻田大, 日本大, 慶應大, 帝國大 등이었고, 일정한 비율의 수적 증가가 1920년대 지속되었다. 특히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이후 이와 관련되어 제명된 학생들이 일본유학을 선택하여 수적인 증가가 나타났다.

<표3> 1920·30년대 초 도일 유학생의 추이<sup>39)</sup>

연도	유학생수	연도	유학생수
1923	1,001	1924(6)	1,601
1925(10)	2,087	1926(6)	3,375
1928	12,320	1929(9)	4,433
1930(10)	5,285	1931(10)	5,062
1932	4,977	1933	5,369
1934	6,093	1935	7,292

### 3. 재일한인 민족운동과 재일유학생 운동

재일한인 사회는 1910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들은 소수이지만 일본 사회 속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갔다. 1910년 이전 재일한인은 유학생과 소수의 상인으로 구성되었다.

재일한인 사회의 모습을 보이기 이전부터 즉, 대한제국 시기부터 재일한인 유학생들은 단체를 조직해 조직 활동을 전개했다. 1895년 4월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와 같은 해 9월 제국청년회를 결성하여, 유학생의 친목 도모와 민족의식의 고취에 앞장섰다.

1905년부터 1910년 이전에도 도일 재일한인 유학생들은 반일적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1906년에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1909년에 대한홍학회를 결성했다. 특히 1905년 을사조약

37) 『朝鮮警察之概要』, 朝鮮總督府警務局, 1925, 168쪽.

38) 「在留朝鮮人の運動狀況」(朴慶植 編,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2-1)), 75쪽.

39) 大阪府社會部, 「朝鮮勞働者問題」(1923), 「内地に於ける朝鮮人と其犯罪に就いて」(1927), 「在日本朝鮮人の運動狀況」(1929), 현규환, 『한국이민사』(하), 삼화출판사, 1976.

이 강제로 체결된 직후에는 동경부립 제1중학교장이 조선 학생을 모욕한 신문 인터뷰에 반대하여 동맹휴교를 단행했다. 1907년 早稻田大學의 모의국회에서 재일한인 유학생은 ‘한국 황제를 일본의 화족으로 봉할 것’을 제목으로 정한 것에 항의하여 자퇴하였다가 학교로부터 사죄를 받아냈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재일한인 사회는 유학생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직화의 길을 갔다.<sup>40)</sup> 1910년대 초 재일한인 유학생 내부에서는 국권회복을 부르짖으며 비분강개를 털어놓는 사람이 절대 다수는 아니었다. 이러한 사람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1917년 후반부터이다. 그 이유는 국제정세의 변화 가운데 러시아혁명의 성공, 그리고 일본 내 1918년 8월 쌀소동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의 회관은 학우회를 비롯한 다른 조직이 주최한 모임의 회장으로 빈번히 사용되었다. 이들 유학생의 근거지인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는 재일한인 유학생운동의 메카와 같았다. 재일한인 유학생의 중요 단체 중의 하나인 조선학회는 전회원이 2·8운동에 돌입했고,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유력한 세력이었다. 특히 여자 유학생 단체인 조선여자친목회는 이광수와 전영택의 후원 아래 조직되었고, 2·8운동에도 적극 관여했다.

재일한인의 1910년대 운동을 거론할 때 주목되는 사건이 1919년 2·8운동이다. 이 사건은 실제로 주도한 세력은 학우회이다. 학우회의 전사를 간단히 보면,<sup>41)</sup> 1911년 흥학회의 후신으로 조선유학생친목회가 결성되었고, 이 단체는 다음해 3월 해산 당했다. 이에 유학생들은 종래의 도별 유학생 구락부를 기초로 하여 1912년 10월 학우회를 조직했다. 학우회는 재일 유학생이 조직한 단체 중 세력이 가장 컸으며, 처음 유학 온 학생들은 반드시 이 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학우회는 임시총회 및 용변회, 졸업생 축하회, 신도래학생환영회, 운동회 등을 통하여 배일사상을 고취했고, 아울러 기관지 『학지광』을 발간하여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학생에게도 신사상과 반일사상을 고양했다.

이러한 학우회가 주도한 2·8운동은 1919년 2월 8일 재일유학생들에 의해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오후 2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낭독함으로써 막이 올랐다. 2·8운동 발생의 직접적인 계기는 영국인이 발행한 『The Japan advertiser』에 실린, 이승만이 한국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간다는 소식<sup>42)</sup>과 이광수에 의해 상해에서 독립운동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본국에서도 멀지 않아 투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소식 등이었다.

이후 2·8운동의 주체는 여러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반일운동에 헌신했다. 특히 1919년 2·8운동 이후 일본유학생 내부에서는 새로운 경향으로 재일동포 내부에 들어가 이들을 계몽하고 각성시켜 상호부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에 헌신했다.<sup>43)</sup>

1919년 3·1운동 이후 국내에서의 반일투쟁의 활발한 전개와 더불어 일본에서도 재일한인들은 단체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하게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40) 정혜경, 「재일한인의 정착과 생활(1920-1928)」, 『일본 한인의 역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9, 68쪽.

41) 김인덕, 「학우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66), 1995, 참조.

42)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223-224쪽.

43) 강제연, 「2·8독립선언과 3·1운동」,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3)(3·1운동), 1988, 215쪽. 이후 재일유학생은 1925, 26년 시기와 1930년대 초 당재건운동기에 국내 반일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친다.